

헤어 컬러 선호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하경연

진주국제대학교 인체예술학과

A Study on Preferences of Hair Colors depending on Demographic Variables

Keong-Yeun Ha

Dept. of Beauty & Fashion,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2003. 9. 15. 접수)

Abstract

Just as costumes reflect the spirit of the time, hair styles echo the social changes and even facilitate them, being used as a means of communication. In short, hair styles reflect the cultural life of the time dynamically. In our modern times, fashion is moving very fast, and such a phenomenon is more conspicuous in hair styles. While individuals are eager to pursue their own individuality, hair styles play a leading role in fashion, excelling the costumes. In this sense, we need to note that hair styles may be related with individual,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s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hair colors, the scope of hair color selection becomes wider. People visit beauty shops to have their hair colors changes rather than have their hairs cut.

Selection of a hair color seems to be deeply related with individuals' psychological states. Since hair colors have much effects on their facial images, hair designers need to have an empathy with their customers. Each person has his or her own unique image, and his/her selection of hair colors is affected much by external environment as well as his/her traits. With such basic assum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the preferences of hair colors by those in their 20's, 30's and 40's who are more interested in their hair colors. To this end, their preferences of or tendencies for hair colors were surveyed by sex, age group and job.

key words: hair color (헤어염색), permanent (헤어 펌), modern times (현대적인), preferences (선호도), tendencies (추구하다)

I. 서론

1. 연구 목적

패션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과 같이 헤어스타일 또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외모를 통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면서 그 시대의 문화적 삶을 역동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패션의 큰 흐름 속에서, 특히 헤어스타일은 그 양상을 더욱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더욱이 외모에 반영된 개인의 강한 개성추구현상이 의상을 능가하게 되면서, 헤어스타일은 패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듯한데 이는 헤어스타일이 패션과 더불어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인 여러 요인과 관련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헤어스타일은 인체에 행해지고 연출되어져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시키는데, 나광주는 헤어스타일이 패션에 있어서 개인의 이미지를 더욱 많이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사람의 인상을 형성시킴에 있어 의상이 33.55%임에 반하여 헤어스타일은 66.45%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이 때, 헤어스타일은 사람의 얼굴이미지 즉, 개인의 고유한 성격은 물론 사회·경제적 지위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1989)¹⁾ 헤어스타일은 사람의 외모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쉽게 띄는 부분이고, 패션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패션과 헤어스타일과의 관련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특히 패션 트렌드의 각 요소 중 컬러와의 밀접성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헤어스타일에서는 개성적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커트, 염색, 퍼머넌트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헤어염색은 헤어디자인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헤어염색은 모발의 색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미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개성 표현과 함께 헤어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헤어미용의 한 분야이다. 특히 오늘날에 이르러 헤어 컬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색에 대한 선택의 폭은 더욱 다양해졌으며, 사람들은 단순히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발 색을 바꾸기 위하여 미용실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헤어 컬러 선택은 개개인의 심리상태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얼굴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객과 디자이너간의 충분한 교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며, 이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와 취향, 사회적 역할, 그리고 트렌드 등에 영향 받게 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헤어컬러를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라 비교한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헤어컬러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셋째, 헤어 컬러의 톤을 강렬한 헤어컬러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컬러로 구분하여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컬러는 패션에 있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시각적 디자인 요소이며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윤주의 연

구에 의하면 컬러의 심리적 기능은 컬러의 영향과 컬러의 미적 효과에 관한 것이며 문자, 픽토그램 등과 같은 표기 이상으로 직접적 효과에 의거하므로 인종, 언어, 시대를 초월하여 전달하는 감각적 수단이 된다. 그러나 생활양식이나 문화적·사회적 배경, 지역과 풍토에 따라 개인차를 지니며 다양한 심리적 상황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²⁾

컬러에 대한 모든 심리적 효과는 컬러를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효과이며, 컬러에 대한 심리적인 동요는 연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³⁾, 이 때 연상이란 어떤 사물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할 때 그와 관련된 다른 사물이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인자의 연구에서는 의복 컬러가 첫인상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복 구성 요소라고 지적하였고⁴⁾, 이주현의 연구에서는 suit의 컬러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⁵⁾. 권미세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컬러와 의복 컬러로 선호하는 컬러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⁶⁾. 백선원의 연구에서는 20대는 검정, 흰색 순으로 선호하고, 30대는 검정, 빨강, 40대는 흰색, 빨강의 순으로 선호한다고 하였다⁷⁾. 류숙희, 김보현의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이 무채색을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는 파랑, 노랑, 빨강의 순으로 선호한다고 하였다⁸⁾. 차미승은 의복형태와 의복색채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를 분석한 연구에서 현시성, 성숙성요인에서는 의복형태보다 의복색이 더 두드러진 효과를 보였다⁹⁾. 이정옥 등의 연구에서는 무채색 의복이 유채색 의복보다 평가성이 높은 반면 활동성이 낮다고 하였다¹⁰⁾. 김현주는 현재 구입하고 싶은 의복 컬러와 선호하는 컬러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현재 구입하고 싶은 의복 컬러는 소유하고 있는 의복색채와 거의

일치한다고 하였다¹¹⁾. 김윤경¹²⁾ 등의 연구에 의하면 의복스타일, 의복색채, 지각자 변인은 의복착용자의 인상 형성 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의복 색과 톤은 중요한 의복단서 중 하나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서는 의복 색채의 선호도가 성별, 연령별로 컬러 선호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헤어 컬러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이 결과에서와 같이 헤어 색채에서도 의복 색채와 같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색과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색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색을 현재의 컬러로, 선호하는 컬러를 선호컬러로 구분하여 조사함으로써 현재의 헤어컬러와 선호하는 컬러와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 컬러의 선호도가 인구 통계적 변인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현재 착용하고 있는 헤어컬러의 선호도와 선호하는 헤어컬러와의 관련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헤어컬러에 의해 전달되는 의미는 개개인이 선호하는 컬러의 특성이 영향을 주겠으나 사회적 맥락이나 배경이 영향을 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에 따른 현재의 헤어컬러와 선호하는 헤어컬러, 톤에 대한 선호도를 연구 변인으로 정하고 각 변인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 문제 1. 현재의 헤어색을 성별, 연령, 직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연구 문제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헤어컬러 선호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 문제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컬러 톤별 선호도의 차이를 밝힌다.

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설문지법을 통해 2003년 9월 25일 ~ 10월 5일 까지 조사하였으며 총 120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진주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40대의 성인 남·녀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헤어컬러에 관심이 많고, 컬러에 의한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다는 실무 경험에 따른 것이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Duncan Test, χ^2 검정, Paired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4. 측정 도구

1)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현재의 헤어컬러에 대한 측정 문항, 컬러에 따른 선호 정도에 대한 측정 문항, 헤어컬러의 톤에 따른 선호 정도에 대한 측정 문항,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측정 문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현재의 헤어 색과 헤어컬러의 톤에 대한 선호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택항목을 붉은색 계열, 노랑색 계열, 녹색 계열, 파랑 색 계열, 갈색 계열, 검정색 계열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컬러에 따른 가장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속성을 아주 싫어함, 싫어함, 보통, 좋아함, 아주 좋아함 등의 Likert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 통계적 변인은 연령, 성별, 직업 등을 포함 시켰으며 성별과 연령은 주관식 측정법에 의하여 조사하였고 직업은 대학생, 사무직·전문직, 서비스

직, 주부·무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 조사 대상 색채의 선정

조사대상의 색상은 조사시 선호하는 색상을 기존의 의복 컬러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적합한 색상의 범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제시한 색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Wella의 염모제에 대한 샘플을 제시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자주 사용되는 붉은색 계열, 노랑색 계열, 녹색 계열, 갈색계열, 검정색 계열의 5가지 색상을 선정하였다.

다음은 톤에 따른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위의 5가지 색상을 화려한 원색의 컬러를 강렬한 톤과 중간톤의 색상을 부드러운 톤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변인에 대한 분포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에 무응답을 제외하고 119명중 여자 62명으로 전체의 52.1%이고, 남자 57명으로 전체의 47.9%이다. 연령에서는 118명중 20대 43명으로 전체의 36.4%이고, 40대 39명으로 전체의 33.05%이고, 30대 36명으로 전체의 30.51%의 순이다. 직업에서는 103명중 사무직·전문직 45명으로 전체의 43.69%이고, 서비스직 25명으로 전체의 24.27%이고, 주부·무직 17명으로 전체의 16.50%이고, 학생 16명으로 전체의 15.53%의 순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변인

변인		N	%
성별	남	57	47.90
	여	62	52.10
	합계	119	100.00
연령	20대	43	36.44
	30대	36	30.51
	40대	39	33.05
	합계	118	100.00
직업	학생	16	15.53
	사무직·전	45	43.69
	문직	25	24.27
	서비스직	25	24.27
	주부·무직	17	16.50
	합계	103	100.00

2. 현재의 헤어컬러에 대한 남·녀의 비교

<표 2>에서와 같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헤어 컬러의 성별에 따른 비교는 남자의 경우에는 검정색이 63.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노랑색 계열이 15.79%, 갈색계열 14.04%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는 갈색 계열이 48.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검정색 계열이 41.94%로 나타나 현재 착용하고 있는 헤어색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p<.01)

<표 2> 현재 착용하고 있는 헤어 컬러의 성별에 따른 비교 () : %

헤어컬러	성별		합계
	남	여	
붉은색 계열	2 (3.51)	1 (1.61)	3 (2.52)
노랑색 계열	9 (15.79)	5 (8.06)	14 (11.76)
녹색 계열	2 (3.51)		2 (1.68)
갈색 계열	8 (14.04)	30 (48.39)	38 (31.93)
검정색 계열	36 (63.16)	26 (41.94**)	62 (52.10)
합계	57 (100.00)	62 (100.00)	119 (100.00)

$\chi^2=17.647$ df=4 p<.01

3. 현재 착용하고 있는 헤어 컬러의 연령별 비교

<표 3>에서와 같이 연령에 따른 현재 착용하고 있는 헤어 컬러의 비교에서 검정색 계열이 40대가 58.97%로 가장 높았고, 20대 3.49%, 30대 41.67%순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는 검정색 계열 52.10%, 갈색 계열 31.93%, 노랑색 계열 11.76%, 붉은색 계열 2.52%, 녹색 계열 1.68%의 순으로 검정색 계열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30대, 40대 모두 검정색과 갈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표 3 > 현재 착용하고 있는 헤어 컬러의 연령에 따른 비교 ():%

연령 헤어컬러	연령			합계
	20대	30대	40대	
붉은색 계열	1 (2.33)	2 (5.56)		3 (2.52)
노랑색 계열	5 (11.63)	7 (19.44)	2 (5.13)	14 (11.76)
녹색 계열	1 (2.33)	1 (2.78)		2 (1.68)
갈색 계열	13 (30.23)	11 (30.56)	14 (35.90)	38 (31.93)
검정색 계열	23 (53.49)	15 (41.67)	23 (58.97)	62 (52.10)
합계	43 (100.00)	36 (100.00)	39 (100.00)	119 (100.00)

$\chi^2=7.907$ df=8

4. 현재 착용하고 있는 헤어 컬러의 직업별 비교

<표 4>에서와 같이 직업에 따른 현재 착용하고 있는 헤어 색의 비교는 학생이 검정색 계열 62.0%, 갈색 계열 31.25%, 녹색 6.25%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무직·전문직에서는 검정색 51.11%, 갈색 26.67%, 노랑색 계열 13.33%, 붉은색 계열 6.67%, 녹색 계열 2.22%의 순으로 나타났고 검정색 계열이 가장 높았다. 서비스직에서는 검정색계열 52.94%, 갈색 계열 32%, 노랑색 계열 20%의 순으로 검정색 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부·무직에서는 검정색 계열 52.94%, 갈색 계열 35.29%, 노랑색

11.76%의 순으로 검정색 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검정색 계열 52.1%, 갈색 계열 31.93%로 검정색 계열과 갈색 계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형태에 따라서도 현재 착용하고 있는 현재 착용하고 있는 헤어색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직업에 따른 현재 착용하고 있는 헤어 컬러의 비교

직업 헤어컬러	직업				합계
	학생	사무직 , 전문직	서비스 직	주부 무직	
붉은색 계열		3 (6.67)			3 (2.52)
노랑색 계열		6 (13.33)	5 (20.00)	2 (11.76)	14 (11.76)
녹색 계열	1 (6.25)	1 (2.22)			2 (1.68)
갈색 계열	5 (31.25)	12 (26.67)	8 (32.00)	6 (35.29)	38 (31.93)
검정색 계열	10 (62.50)	23 (51.11)	12 (48.00)	9 (52.94)	62 (52.10)
합계	16 (100.00)	45 (100.00)	25 (100.00)	17 (100.00)	119 (100.00)

$\chi^2=10.140$ df=12

5.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헤어 컬러 선호도의 차이

<표 5>에서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헤어컬러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붉은색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평균 2.23, 여자 2.13으로 모두 싫어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남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헤어컬러 선호도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헤어컬러 항목		붉은색	노랑색	녹색	파랑색	갈색	검정색
		성별					
성별	남	2.23 (1.25)	2.88 (1.17)	1.89 (1.13)	2.04 (1.10)	3.59 (1.07)	3.81 (1.25)
	여	2.13 (1.09)	2.65 (1.17)	1.79 (.99)	1.74 (.99)	3.98 (.74)	4.05 (.86)
	t	.460	1.080	.536	1.529	-2.303*	-1.240
연령	20대	2.42 (1.20)	3.00 (1.05)	1.84 (.90)	2.26 ^a (1.20)	3.81 ^{ab} (.85)	4.12 (1.03)
	30대	1.92 (1.32)	2.78 (1.35)	1.94 (1.33)	1.81 ^{ab} (1.14)	3.49 ^b (1.20)	3.81 (1.26)
	40대	2.18 (.94)	2.51 (1.07)	1.77 (.96)	1.56 ^b (.60)	4.08 ^a (.62)	3.85 (.90)
	F	1.833	1.814	.256	4.889**	3.913*	1.019
직업	학생	2.25 (1.00)	3.00 (1.10)	1.81 (.83)	2.38 (1.26)	3.81 (1.05)	3.88 (1.20)
	사무직, 전문직	1.91 (1.18)	2.73 (1.21)	1.82 (1.19)	1.69 (1.00)	3.70 (1.07)	3.96 (1.21)
	서비스직	2.56 (1.19)	2.88 (1.09)	2.20 (1.08)	2.12 (.88)	3.76 (.83)	4.08 (1.08)
	주부, 무직	2.18 (1.01)	2.65 (1.11)	1.41 (.80)	1.71 (1.10)	3.88 (.86)	3.82 (.81)
	F	1.794	.351	1.895	2.334	.150	.209

* : p < .05 ** : p < .01

a,b : Duncan Test

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 붉은색의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는 20대 2.42, 40대 2.18, 30대 1.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싫어하는 경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에 따라 붉은색의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는 서비스직 2.56, 학생 2.25, 주부·무직 2.18, 사무직·전문직 1.9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갈색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여자가 3.98로 남자 3.59보다 높게 나타나 5%의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갈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갈색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40대가 4.08로 30대

3.49보다 더 높게 나타나 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20대는 어떤 연령대와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따라 파랑색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20대가 2.26으로 30대 1.81보다 더 높게 나타나 5%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40대는 어떤 연령대와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톤의 선호도의 차이

<표 6>에서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톤의 선호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강렬한 톤의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평균 2.39, 여자 2.30으로 모두 싫어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 부드러운 톤의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는 40대 4.40, 20대 4.03, 30대 3.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5%의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 따라 부드러운 헤어색의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는 주부·무직 4.18, 학생 4.14, 사무직·전문직 4.08, 서비스직 3.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톤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연령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톤의 선호도 차이 평균(표준편차)

항목	헤어컬러	강렬한 톤	부드러운 톤
	성별	남	2.39 (1.15)
	여	2.30 (1.14)	4.15 (.79)
	t	.363	-.947
연령	20대	2.59 (1.04)	4.03 ^{ab} (.63)
	30대	2.42 (1.50)	3.70 ^b (1.40)
	40대	2.00 (.87)	4.40 ^a (.55)
	F	2.533	4.887*
직업	학생	2.57 (.76)	4.14 (.53)
	사무직, 전문직	2.29 (1.23)	4.08 (1.02)
	서비스직	2.55 (1.22)	3.77 (1.07)
	주부, 무직	1.92 (.79)	4.18 (.40)
	F	1.066	.793

* : p < .05 ** : p < .01

a,b : Duncan Test

V. 결 론

본 연구는 현재의 헤어색과 선호하는 헤어색, 톤을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톤에 따른 선호도를 이들 선호도와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 문제 별로 연구 결과 및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착용하고 있는 헤어색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는 남자의 경우에는 검정색 계열, 노랑색 계열, 갈색 계열 순으로 검정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는 갈색 계열, 검정색 계열의 순으로 갈색 계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헤어색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에 따른 비교에서는 검정색 계열이 40대가 가장 높았고, 20대, 30대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검정색 계열, 갈색 계열, 노랑색 계열, 붉은색 계열, 녹색 계열의 순으로 검정색 계열이 가장 높았다. 즉 20대, 30대, 40대 모두 검정색과 갈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에 따른 비교에서는 학생은 검정색 계열, 갈색 계열, 녹색의 순으로, 사무직·전문직에서는 검정색, 갈색, 노랑색 계열, 붉은색 계열, 녹색 계열의 순으로 나타났고 검정색 계열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직에서는 검정색 계열, 갈색 계열, 노랑색 계열의 순으로 검정색 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부·무직에서는 검정색 계열, 갈색 계열, 노랑색의 순으로 검정색 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 형태에 따라서도 현재 착용하고 있는 현재 착용하고 있는 헤어색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는 갈색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갈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색 선호도는 연령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40대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특별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드러운 헤어색은 40대, 20대, 30대 순으로 선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로 볼 때, 염색약 제조업체에서 의도되어진 컬러 트렌드가 헤어 컬러 유행을 이끌어낸다는 일반적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모발의 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색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의 표집이 진주시내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선호도의 척도가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며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의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연구 지역 범위 설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연구대상의 수 또한 확대시킴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헤어컬러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상형성에 미치는 헤어컬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것이 외모 만족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방향 설정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나광주(1989).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관한 관심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이윤주(1999). 색채 이미지에 기반 한 패션 색채 계획 도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Kandinsky, W. 권영필역(1999). 예술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서울: 열화당.

- 4) 이인자(1974). 성격과 의복 상호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2), pp.785-799.
- 5) 이주현(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권미세(1977). 우리나라 노년층의 의복색 기호에 관한 조사. 덕성여자대학교 논문집, 5·6, 19.
- 7) 백선원(1990). 여성의류의 색채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류숙희, 김보현(2001). 성인 남성의 의복색채 선호와 색채관심에 관한 연구- 연령, 성격, 피부색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9(2), pp.308-318.
- 9) 차미승(1992). 의복 형태와 색채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pp.167-180.
- 11) 김현주(1998). 여중생의 의복 선호색과 색채연상어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김윤경, 강경자(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4), pp.395-406.